

여야, '이태원 참사'에 정쟁 멈추고 초당적 협력 시동

주호영 "사고 수습 협조키로 한 이재명에게 감사" 野 지도부, 정쟁 빼고 사고 수습에 한 목소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엔 질타 "책임회피성 발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검찰 수사로 촉발된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에 서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게 정쟁 자제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쟁을 이 기간 만이라도 멈춰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국민의힘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책 회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그럴 뜻을 갖고 있다"며 "당내에서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면 만들 것이고 TF에서 야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청에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쟁을 멈추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명복,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또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고 수습과 국민적 애도의 시간에 집중하면서도 당 대책기구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시의회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민적 트라우마를 보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관련 논의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 따라 정쟁 소지가 있는 안건은 후순위에 두기로 했다. 안건 변경에 따라 의총에서는 이태원 참사 등 현안과 카카오톡 방화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품단기연동제 도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못매를 맞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질타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정부당국은 이런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란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회피성 말을 한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울먹이며 "무능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미안해 할 줄 모르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관계자들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정부 감당하기 참 괴롭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野, 진상조사단 등 '이태원 대책본부'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박찬대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구성을 마쳤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사고수습단·국민추모단·진상조사단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필두로 부분부장은 이상민 민주당 국민안전재단 재해대책위원장이 맡았다.

사고수습단장은 남인순 의원이 맡고 전용기, 신현영 의원이 함께 한다. 국민추모단은 유기홍 의원이 단장이며 이학영, 민병덕, 한준호

의원이 포함됐다. 진상조사단에는 김교홍(단장), 이해식, 오영환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 규명에 앞서 피해 지원 및 사고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구 설립에 대해 "사고 피해를 수습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첫번째이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유가족 분들과 함께 애도해나가는 것이 두번째"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책본부는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기자

한춘옥 정영균 도의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전남도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한춘옥 위원장(순천2)과 정영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위해, 강원도민·경북도민의 많은 응원·관심 당부

군 위원(순천1)은 최근 이틀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알리기 위해 강원도의회와 경북도의회를 각각 방문했다.

한춘옥·정영균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강원도의회 광도영 의장과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을 만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정원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도의회 광도영 의장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도 적극 알려 순천만국제정원박

람회를 찾아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으며,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은 "평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3년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거듭났으며,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